

오늘은 좌충우돌 내일은 성공신화...재래시장서 당찬 도전

을미년 희망을 쓴다-광주 대인시장의 '젊은 CEO들'

색종이 도자기·친환경 농산물·퓨전 분식점 등 다양한 아이টে็ม으로 자신만의 꿈 향해 힘찬 비상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희망찬 새 해가 왔다. 극심한 경기 침체와 취업난으로 저물어가는 세밑에도, 대학 도서관은 환하게 불을 밝혔고 바늘구멍같은 취업문을 열었다며 늦도록 책과 씨름하는 젊은이들로 가득하다. 이들 뿐일까.

절망보다는 희망을, 좌절보다는 도전을 선택하고 앞길을 열어나가는 젊은이도 적지 않다.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에 등지를 뜬 젊은이들도 자신만의 색깔로 꿈을 이루겠다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나선 청년들이다.

한 때 광주 대표 시장으로 북적했던 대인시장. 하지만 대형마트의 공습으로 오가는 사람조차 드물고 빈 가게가 늘어나는 등 상권이 사라진 지 오래다.

그만큼 꿈을 이루기 위한 무대로 재래시장을 택한 젊은이들의 도전과 사그라지는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도 신선하게 받아들여진다.

홍두준(29)씨의 경우 대인시장에서 창업의 꿈을 펼치고 있는 20대 젊은이이다. '도자기의 꿈'이라는 명칭의 가게는 색종이로 자신만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장소다. 그는 최근 인기를 끌었던 케이블TV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인 '장그래'와 비슷 한 시절을 보냈다.

고등학교 졸업 뒤 대학에 가지 않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뒤 중국으로 건너갔고 무역상사에 취직, 근무하다가 최근 국내로 발길을 돌린 케이스다.

홍씨는 도자기 공예를 하는 아버지와 가업을 물려받은 누나의 경력을 활용해 도자기 도·소매업이라는 아이টে็ม으로 '젊은 CEO' 대열에 합류했다. 지금껏 사업 아이টে็ม을 구상하고 정리했다면 올해 구상중인 사업의 글로벌화가 홍씨 목표다. 홍씨는 중국업체 도자기 반제품을 들여와 우리나라 업체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크게 펼친다는 목표를 세워놓았다.

이두형(36)씨는 61년 전통 대인시장의 추억을 활용한 아이টে็ม으로 5년 동안 일한 동신대 디지털콘텐츠협동연구센터를 박차고 나와 창업 시장에 뛰어 들었다.

그의 가게 '메모리즈'는 옛날 과거와 공깃돌, 딱지와 같은 어릴 적 향수를 자극하는 장난감, 문방구들로 가득하다. 창원에서 열린 2014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청년창업관에 자신만의 작품을 출품했고 좋은 반응을 얻어 자신감도 커졌다.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직접 음료와 도시락으로 만들어 파는 '더 푸릇'의 서수현(여·36)씨도 남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대인 시장으로 들어섰다. 전남대학교 연구원 실장직을 내던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경영인 교육을 거쳐 평소 관심이 있었던 친환경 인증 농산물 분야에 눈을 돌렸다. 여기에서 과일과 음료, 도시락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데 주춤, 사업 아이টে็ม으로 택했다. 서씨는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봐서 직성이 풀려서 어떤 일이 주어져도 두려운 것은 없다"고 당차게 말했다.

박슬비(여·24)씨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 만든 소풍·캠핑·파티용품을 시장 골목



광주 대인시장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 상인들이 지난 30일 시장 한복판에서 을미년 새해를 앞두고 힘찬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정민기(39), 서수현(여·36), 홍두준(29), 이두형(36), 박슬비(여·24), '시장거리공연단' 김영민(24), 신준섭(24)씨.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에 내놓고 거센 경쟁에 뛰어 들었다. 번듯한 디자인업체 취직해 순탄하게 지내는 인생 대신, 자신이 만든 디자인에 맞는 재료를 구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힘든 생활을 택했다. "이제 막 대학 졸업해서 무슨 사업이나"는 동료, 가족들의 반대는 젊음으로 극복했다. 이들 외 남들과 다른 새로운 '꿈'을 만들어 내겠다는 청소년들도 시장 현전을 채우고 있다. 시장 내 퓨전 분식집 '요야끼'의 경우 젊은 사장님과 학생들이 모여 만든 새로운

아이디어 식당이다. 청년상인 1호점인 식당 주인은 15명의 청소년이다. 평범한 학생들과 다른 생각을 갖던 중학생 8명, 고등학생 7명이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를 찾았다가 만나 의기투합한 학생들로, 학생들의 아이디어는 정민기(39) 센터장과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도움으로 '청년 상인 육성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됐다. 열렬한 시장에 들어간 학생들은 각자의 아이টে็ม으로 시장에서 생존해가고 있다. 이현수(16·무진중 3년)군은 문예행을

만들어 내놓는 데 수준급이다. 정명진(여·17·송원여상 1년)양은 자신만의 소스를 버무린 오꼬노미야끼를 만들고 유다는(여·18·대안교육공간 징검다리배움터)양은 메뉴 개발과 음식 재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는 식당과 달리, 그때 그때 신메뉴를 내놓고 손님들의 반응을 받아 메인 메뉴를 결정하는 파격과 5·18 광주민중항쟁의 상징적 음식이었던 주먹밥을 활용한 퓨전 요리를 내놓는 참신함, 스카게이트와 밥을 곁에 넣어 판매하는 신선함도 갖췄다.

더 나아가 시장에서 구입한 재료로 즉석에서 요리할 수 있는 식당으로의 변신 계획도 구상 중이다. 청소년 협동조합을 만들 예정인 정씨는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자신만의 길을 택해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 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들의 우여곡절 꿈 희망가는 조만간 '청년 상인'이라는 잡지에 실린다. 젊은이들의 야심 찬 희망가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균열' 한빛원전 3호기 원자로 헤드 교체

한수원 6일부터...10년 된 부품으로 교체 안전성 우려

수차례 결함이 발견돼 불안감을 키운 한빛원전 3호기 원자로 헤드 교체된다. 지난 2012년 원자로 헤드 결함 등의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뒤 결정한 것이지만 10년 전 '복합 경수로 사업'을 위해 제작된 '구식'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우려된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6일부터 한빛 3호기 원자로 헤드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한빛 3호기는 지난 10월 중기발전기 세관에 결함이 생겨 계획 예정 정비를 앞당겨 시행해 왔다.

한빛 3호기는 2012년 11월 계획 예정 정비기간에 원자로 헤드 안내관에서 균열이 발견돼 보수에 들어갔다. 당시 임시 조치

인 '덧씌움 보강용접(EPR)' 방식으로 보수를 완료했다.

원전 당국은 한빛 3호기 원자로 헤드에 사용된 인코넬 600 재질이 고온·고압에서 부식과 균열에 취약하다고 판단, 보다 강화된 재질로 알려진 인코넬 690 재질로 대체어진 원자로 헤드로 교체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빛원전 민관합동대책위'는 원자로 헤드 교체에 앞서 안전성 검증단을 운영, 비파괴 검사, 수압 시험 등을 참관했다. 교체 과정에도 참여해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악필이면 어때요? ...손편지 정성이 최고의 선물이죠"

갈수록 줄어드는 편지 안타까워하는 집배원

빨간 우체통도 사라질 위기

집배원 신준호(44)씨는 배달할 편지들을 뒤적이다 "오늘은 꽃편지가 들어 있네"라며 반겼다. 사람들의 사연이 담긴 편지를 배달해 온 지 20년째에 접어들면서 손글씨로 적힌 편지는 찾아보기 힘든 '귀한 물건'이 됐다.

신씨가 담당하는 광주시 남구 학동 인근 빨간 우체통 3곳에서 수거하는 우편물에 꽃편지가 포함되는 경우도 한 달에 한 두 번에 불과할 정도다.

규격에 맞지 않아 일일이 손으로 분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적지 않지만 집배원들은 알뜰달라한 봉투에 담긴 편지를 '꽃편지'라는 애칭과 함께 소중하게 여긴다. 보내는 사람들의 정성과 받을 사람에게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이 인터넷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에 비할 바



서구 서창동우체국 앞길의 우체통. 1966년 11월 1일에 설치돼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우체통이다.

못된다는 판단에다. 10~20대 젊은이들의 경우 손으로 편지를 쓰는 것보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익숙하다보니 주소 파악도 힘들만큼의

'악필'로 편지를 채운다. 예전같으면 '반송' 조치가 내려지지만 요즘엔 정성이 담긴 편지라며 동네 주민센터까지 방문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한 뒤 배달해주는 수고를 마다않는다.

우표를 붙였다가 떨어진 손편지의 경우 사비로 우표를 사서 붙인 뒤 배달하는가 하면, 우체통에 집어넣은 이물질로 더럽혀진 손편지는 이물질을 닦고 말린 뒤 보내기까지 한다. 집배원들은 "잊혀진 예전의 추억을 아스라히 떠올리게 하는 '선물'을 함부로 다룰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집배원들의 애정에도 손편지 등 일반 우편물량은 급감하고 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의례껏 주고 받은 연하장이 끊어질 대신 시제도 옛말이다. 모바일 메신저가 대신하면서 우체통 손 편지는 물론, 연말과 신년을 맞아 지인에게 보내는 연하장마저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 30일 전남지방우정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우편물 배달 물량은 ▲2012

년 3억6049만6000통 ▲2013년 3억4696만7000통 ▲2014년 3억2234만4000통 등으로 2년 전과 비교해 3815만2000통(7.1%)이나 줄었다.

연하장·크리스마스 카드 등으로 우편물량이 많은 12월의 경우 지난 2012년 3076만4000통에 비해 지난해 2440만여 통으로 17.4%가량 급감했다.

빨간 우체통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011년 우체통 수집물량이 96만5550통에서 2013년 절반 수준인 50만4939통(47.7%)으로 급감하는 수준에 맞춰 감소하고 있다.

광주 지역 우체통은 ▲2012년(621개) ▲2013년(601개) ▲2014년(581개)로 해마다 20개씩 철거되고 있으며 올해 20~30개가 사라진다. 전남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우체통이 없어 불편을 겪거나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고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눈	-5/-1	보성	구름많고 눈	-7/-1
목포	눈	-4/0	순천	구름많음	-4/-1
여수	맑음	-5/0	영광	눈	-5/-2
나주	눈	-6/-1	진도	눈	-2/0
완도	눈	-2/0	전주	구름많고 눈	-6/0
구례	구름많고 눈	-5/0	군산	구름많고 눈	-6/-1
강진	눈	-4/-1	남원	구름많고 눈	-6/-1
해남	눈	-4/-1	홍산	눈	-1/1
장성	눈	-6/-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상황	파고(m)	상황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2.0~3.0	북서~북	1.5~2.5
남부 앞바다	북서~북 3.0~6.0	북서~북	2.0~5.0
남해 앞바다	북서~북 2.0~3.0	북서~북	1.5~2.5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3.0~5.0	북서~북	2.0~5.0
면바다(서)	북서~북 3.0~4.0	북서~북	2.0~3.0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70
빨래	90

◇주간 날씨

2(금)	3(토)	4(일)	5(월)	6(화)	7(수)	8(목)
☁	☁	☁	☁	☁	☁	☁
-4/1	-3/4	-1/6	1/7	1/5	-3/3	-4/3

성폭행 혐의 수배 20대 경찰 폭행한 뒤 도주

성폭행 혐의로 지명수배된 20대 남성이 읍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뒤 달아나 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N마트 앞길에서 탁모(27)씨가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읍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승용차에서 내린 뒤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이다.

탁씨는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김모(22)상경이 10m 가량 자신을 쫓아오자 넘어뜨린 뒤 김상경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뒤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

탁씨는 지난날 조종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뒤 도피생활을 해왔다. 경찰은 탁씨가 읍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도망간 것으로 보고 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승용차 안에서 모녀 숨진 채 발견

광주서...번개탄 흔적

"미안하다" 유서 발견

광주의 한 장례식장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9일 밤 9시10분께 광주시 북구 A 장례식장 인근 앞길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서 이모(여·35)씨와 딸(9)이 쓰러져 있는 것을 실종신고 받고 순찰 중인 경찰이 발견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밤 9시 광주 모 병원에 간 아내와 딸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가 모녀를 발견했다.

차량 안에서 타다 남은 번개탄의 흔적과 유서가 발견됐다. 이씨가 숨지기 직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A4용지 반장 크기

의 유서엔 '미안하다. 나머지 두 딸을 부탁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최근 경북 경주에서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으며 2년 전부터 우울증과 협심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이씨가 최근 많이 힘들어했다는 지인들의 진술서 미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다만 어린 딸이 조수석 뒷좌석 창문에 기댄 모습으로 발견된 점을 감안, 이미 사망한 뒤 승용차로 옮겨진 것인지 아니면 차 안에서 질식사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가려내기 위해 국과수에 시신의 부검을 의뢰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바닥에 떨어진 밍크 목도리 '슬쩍'



○...커피숍 바닥에 떨어져 있던 고가의 목도리를 주인인 척 물러가려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들킬 뻔했다.

○...지난 3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여·32)씨는 지난 10일 밤 10시10분께 서구 상무지구 모 커피숍 안에 떨어져 있던 오모(여·26)씨의 밍크 목도리(30만원 상당)를 주인인 척 가지고 달아났다는 것.

○...커피숍을 떠나며 목도리가 사라진 사실을 깨달은 오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매장 내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이씨를 붙잡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그는 "카페에 왔다가 우연히 목도리를 줬게 됐을 뿐 훔치려한 것은 아니다. 밍크 목도리도 주인에게 돌려줬다"며 때늦은 후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